

장흥군,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읍면 홍보 실시

소득 재산 기준 적합하면 생계급여 받을 수 있어

500여 가구 추가 기초생활 생계급여 받을 예정

장흥군은 지난 14일부터 현재 까지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하고, 선정 기준도 완화하는 등 생계급여 지원을 강화했다'는 내용으로 읍면을 순회하며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펼

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노인 및 한부모 가구의 경우 자녀·부모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수급가구의 소득 재산에 대한 지원 기준에 적합하면 생계급여 지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흥군은 이번 기준 폐지로 500여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고소득(연소득 1억 원 이상), 고재산(재산9억 원 이상)을 보유 중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종전과 같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 받게 된다.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생계급여 신청은 읍

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복지조사팀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이번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 노인 및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이 한결 해소되길 바란다"며 "장흥군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도움을 주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보성군 회천면, 방문건강 서비스 제공 맞춤형복지 실현

지역 내 홀몸노인·거동이 불편한 분 대상

보성군 회천면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2일 지역 내 홀몸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분을 대상으로 간호공무원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2인 1조로 방문건강서비스를 실시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등 저소득계층 위주의 서비스에서 나아가 장기입원 후 퇴원한 노인, 독거노인, 노인 부부세대 등 건강관리가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 서비스로, 혈

압·혈당 등을 확인하고 생활 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워 외로움을 느끼고 홀몸노인과 만성질환자 등 의료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 등 간호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호 회천면장은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들에게 관심을 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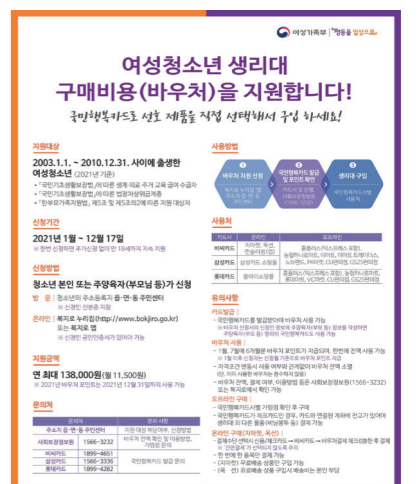
고,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여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담양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바우처 지원

만 11세부터 18세까지 읍·면사무소 방문과 인터넷·모바일 앱로 신청 가능

담양군은 여성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건위생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의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2003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출생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여성청소년이다. 사업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복지포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와 복지포 앱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신청으로 지원 자격에 변

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18세가 되는 해까지 재신청 없이 지원되며, 1월, 7월에 6개월분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된다. 지급된 포인트는 한 번에 전액사용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바우처방식으로 연 최대 138,000원(월 11,500원)이며, 지원대상자들이 개인 기호에 맞는 위생용품을 온·오프라인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 보건 위생용품 구매를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BC, 삼성, 롯데)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카드사별로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에서 물품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 17일까지 연중이나 신청된 달



부터 지원이 시작됨에 따라 1월에 신청해야 1월과 7월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

구례군,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3월까지 연장지원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에 각종 복지서비스 지원

구례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에 지원하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3월 말까지 확대·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소득감소, 휴·폐업 등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

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기존 재산기준 1억 100만원에서 1억 7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금융재산 공제 비율 기준 중위소득 65%에서 150%(1인 가구 274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다른 법령

으로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기준을 완화했다"고 했다. 또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위기가구를 촘촘히 발굴하여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신안군 임자면, 노인일자리사업 시작

신안군 임자면(면장 이명진)은 18일부터 지역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대식은 생략하고 각 근무지별 소규모로 분산하여 소양교육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 앞서 참여자의 발열체크 및 손 소독, 마스크 착용 준수, 참여자 간 2m이상 간격 유지 등 코로나 19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사항을 준수하였으며 교육내용으로는 활동계획 및 근무수칙과 유의사항,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임자면은 올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며, 군 자체사업 인원을 포함하여 총 183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한다. 기동취재본부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

